

로마서 6 장: 죄로 부터의 자유로움

	전반부	5:12-21	6 장	7 장	8:1-13	8:14-39	후반부
죄 hamartia	4	<u>6</u>	<u>16</u>	<u>15</u>	<u>5</u>	0	2
사망 thanatos	2	<u>5</u>	<u>7</u>	<u>5</u>	2	1	0
율법 nomos	<u>33</u>	3	2	<u>23</u>	5	0	6
육체 sarx/soma	6	0	3	<u>5</u>	<u>14</u>	1	8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20 절에 대한 반박(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비교:3:3-8 불의가 의를 드러나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됨,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6:2-6:4. 그럴 수 없느니라 me genoito!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됨, 그리스도의 부활-우리에게 새 생명

*마 10:38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전 12:13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eis=into

비교:갈 6:1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새로운 시대에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비교:롬 7:6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6:5-6:7.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세상으로 부활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종말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

*모양=likeness, resemblance=homoioima

*옛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에 이를 사람

*비교: 엡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 3:9-10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의 몸 to soma tes hamartias: 몸=육신, 문자적인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간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 의미

*참고: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죄에서 벗어나: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되어

6:8-6:10.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6:5-7 절과 6:8-10 절의 비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와 함께 삶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함
-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
-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제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여길지어다 reck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는 결단이 필요하며 그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예수의 재림 시 완성되는 것

6:12-6:14.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2)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3)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간은 없음: 자기 사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의 편이 되는 것

*사욕 epithymia: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반하는 욕망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6:15-6:18.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me genoito!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법 아래: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대로의 의미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한다

*요 8:34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순종의 종: 당시 로마 교인들은 종과 자유민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

*마음으로 ek kardias 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훈의 본 typon didaches 당시에 이미 교리가 정해졌을까의 논의
참고:16:17 너희가 배운 교훈 didache 골 2:6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의의 종: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부정 akatharsia 불법 anomia=이방인, 6:13 불의의 무기

*거룩하게 agiasmos=유대인: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6:14 의의 무기

6:20-6:23.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부끄러워함 aischyne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부끄러움
부끄러워하는 열매 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완전한 영생은 아직 미래의 것이나 (not yet) 이미 이 세상에서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볼 수 있다(already)
*비교:고후 5:4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사망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댓가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